

'좋았다니, 다시한번' 명작 단편 무료로 만나요

국내 최초 국제 경쟁 단편영화제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AISFF)가 지난해 16회째를 맞았다. 이번 영화제는 국제 경쟁 부문에서 브라질, 독일, 스웨덴, 필리핀 등 세계 123개국에서 5822편, 국내 경쟁 부문 970편의 단편이 출품됐으며, 특히 난민, 성소수자, 낙태, 가정 폭력 등의 문제들과 여성·젠더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영화제 화제작들을 지역에서 만나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전 '좋았다니, 다시한번!'이 오는 26~28일 오후 7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된다.

상영전은 '아시프 화제작 전', 'Life is Short!', '발칙한 상상력' 세 가지 주제로 관객을 기다린다. 26일 '아시프 화제작 전' (5편 81분·15세 이상 관람가)에서는 국내경쟁부문 대상 수상작인 방성준 감독의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을 시작으로 국제경쟁부문 선정작이자 개막작인 샤를렌 파리소 등 5명의 '노 그래비티' 등이 상영된다. 뉴필름메이커부문 KAFAs상을 수상한 부은주 감독의 '5월 14일', 아시프 관객심사단상을 받은 레오폴드 르그랑의 '투 헬 위드 코드' 등 작품도 함께한다.

27일 'Life is Short!' (5편 81분·15세 이상 관람가)는 옛 친구와의 트라우마로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2018 수상작 등 15편 상영 26~28일 광주독립영화관 난민·성소수자 주제 등 눈길



1. 노 그래비티 2. 제8의 대륙 3.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인한 고뇌를 담은 올라 헤이커의 '#베 어워드미', 4살배기 딸의 엄마가 폭력적인 남편을 고소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레이먼드 리바이 구티에레스의 '심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고독한 노인의

모습을 담은 기욤 블랑세의 '거짓 출발'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28일 '발칙한 상상력' (5편 73분·18세 이상 관람가)에서는 제임스 케이시의 '칼잡이', 미겔 구에라의 '옥수수밭', 세르

칸 파킬리의 '더 테이프', 파비우 세이슈의 '실매, 삭제', 톰 드 빌의 무성영화 '까마귀 소녀' 등 작품을 스크린에 올린다. 무료 관람. 문의 062-222-189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개 늘린다 문체부, 진흥계획 발표... 지역문화통합시스템 등 구축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202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충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 수를 2023년까지 1310개로 186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개 전략은 공공 문화기반 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직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873개인 박물관은 1013개로 140개, 251개인 미술관은 297개로 46개 확대할 예정이다. 이별 경우 박물관·미술관 1개당 당 인구는 현재 4만5000명에서 2023년

3만900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미술관 이용률은 2018년 16.5%에서 2023년 3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종합-전문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분야별 소장품과 학제 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누어 있는데 구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유형을 간소화한다.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도 있다. 또한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의 대상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조성도 포함돼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도 구축할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6일 '민선 7기, 문화도시 제대로 가고 있나' 포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 현실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민선 7기 1년,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우리지역 4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와 청년문화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민선 7기 1년의 문화정책과 사업,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의 광주시의 책임과 역할, 평가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사회로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이 '광주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꿈꾸며',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역적 전환과 광주시의 과제들'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며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 운영위원장,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윤준혁 상상넷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문의 010-2229-654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26일 김지연 사진작가의와의 대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광주 시립사립전시공간(광주문화회관 내)에서 열리고 있는 김지연(사진) 사진전 '남광주역, 마지막 풍경'전과 연계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26일 오후 3시~5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김지연 작가의 작품세계와 남광주역의 역사적 의미 조명'을 주제로 열리며 김지연 작가와 함께 이주용 한국예술종합



학교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이야기를 풀어 나갈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재즈 밴드 'Cream'의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2-613-71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풍경에 적은 잔잔한 이야기

김용운 작가 '자자애애' 출간 남도의 사계절 풍광을 담은 사진과 정갈한 시를 엮은 사진시집이 나왔다.

김용운 작가가 사진시집 '자자애애 <사진>' (自自愛愛-전라도닷컴 출간)를 펴냈다. 책에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그의 카메라 앵글에 포착된 자연풍경을 담은 사진과 그 사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잔잔한 언어로 풀어낸 시 60여편이 실렸다.

책 제목 '자자애애'는 '사람의 손길 이 닿지 않은 순수한 모습의 자연이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저자의 마음을 담아 정했다. 책은 '얼마나 꿈꾸며 살았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별들을 사랑하기로'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는 강진 백려사 동백, 곡성 장미공원, 고창 정보리밭, 비오는 강천사 풍경 등 남도 땅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아낸 사진들이 실렸다. 그의 앵글은 풀숲에 무심한 듯 얼굴을 내민 민들레 홀씨, 단풍잎에 맺힌 빗방울 등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는다.



'사라지기 전에', '대원사 가는 길', '멈춤', '무릉대원' 등 사진과 어우러진 시편은 간결한 언어로

담아낸 자연의 소묘이자, 삶의 단상이다. '햇빛들이/아침부터/동백잎에서 /미끄럼 타고 놀고' ('미끄럼타기' 중), '원하는 것은/가야할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든 길에도/ 잠시 쉬는 곳에도/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곳에도 있다' ('잘못 든 길' 중)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학시절부터 사진을 찍어온 그는 '자연이 들려준 이야기와 내가 자연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함께 실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정년퇴임한 김 씨는 지난 2016년 풍광 사진을 모아 개인전 '자연의 화양연화'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YB '2019사운드파크페스티벌' 무대에

1차 라인업 9개팀 공개... 7월 14일 5·18민주광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주최하는 음악축제 '2019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일정과 1차 라인업이 24일 공개됐다.

올해 라인업은 윤도현이 이끄는 'YB', 일상을 노래하는 '소란', JTBC '비긴 어게인' 출연예정인 '적재', '아도이', '휴이'를 비롯해 '2019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을 통해 발굴한 지역 신진 뮤지션 '셔츠보이프랭크', 'COSMOS', '페이크 유니버스', '818' 등 총 9개팀이다. 2차 라인업은 오는 7월 2일

공개한다. 매년 9월 사직공원에서 유료로 열렸던 광주사운드페스티벌은 올해 '2019 광주 세계수업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축제 기간을 7월 14일로 변경했으며 5·18 민주광장에서 행사를 개최, 시민들과 수업선수권대회 방문객들이 보다 쉽게 공연 현장을 찾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0-2404.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